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Section IV_ 가족(여성)분과 세미나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14:00 ~ 오후 17:00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가족(여성)분과

인/사/말



김삼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 차

기조강연 	9
“한국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대응방향” _ 한인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발 표 1 	25
“미혼모의 실태와 교회지원” _ 한상순 원장(애란원)	
발 표 2 	43
“차살자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회” _ 하상훈 박사(생명의전화)	
발 표 3 	60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사례” _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종합토론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가족(여성)분과-

“한국사회가 과거에 비해 위기가정의 증가 등 사회분화와 발전에 의해
가족(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명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가정회복운동에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10. 10. 14(목) 오후 2:00 ~ 오후 5:0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13:45 ~14: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4:00 ~14:30	개회예배	인도_ 진희근 목사(승리교회) 기도_ 이은화 권사(경신복지재단 이사장) 설교_ 이재창목사(수원순복음교회)(설교시간은 14:05~14:25입니다) 축도_ 설교자
좌장 : 김혜경 교수(백석대학교)		
14:30 ~15:00	기조강연 I	“한국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대응방향” _ 한인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5:00 ~15:30	발표1	“미혼모의 실태와 교회지원” _ 한상순 원장(애란원)
15:30 ~16:00	발표2	“자살자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회” _ 하상훈 박사(생명의전화)
16:00 ~16:30	발표3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사례” _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16:30 ~17:00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한국 가정의 위기와 대처방안

이화여대 한인영 교수

@ 국제적 추세

영성의 중요성
정신건강의 중요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

@ 한국인의 정신건강

유교문화와 서구문화의 혼재
정신장애 유병률 증가
우울증, 자살 증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가
알코올, 마약, 도박중독 증가
성격장애
성 정체성 혼재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상대평가 제도의 부정적 영향

학년별 체계적 성교육 보완 필요
갈등해결 연습 부재
의사소통기술 훈련 부재
“다름”에 대한 수용 부족

@ 부모교육 필요성

관계의 학습
양육과 발달단계 관련 교육
성교육
재정관리교육
신념에 대한 토론

@ 이혼의 원인

폭력가정
알콜가정
외도
성격장애
경제문제
성문제
외도
남녀 역할차이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기술 부족

@ 교회의 가정사역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정사역 강화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필요

정신건강관련 교육

의사소통 관련 교육

남성 여성의 차이

부모양육기술 교육

혼전부부교육

발달단계별 교육

분노조절 교육

@ 직장과의 연계

피고용자 가정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교육

부부 성교육

자녀양육기술 훈련

금연, 절주 프로그램

건강 관련교육

@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

갈등중재의 필요성

외도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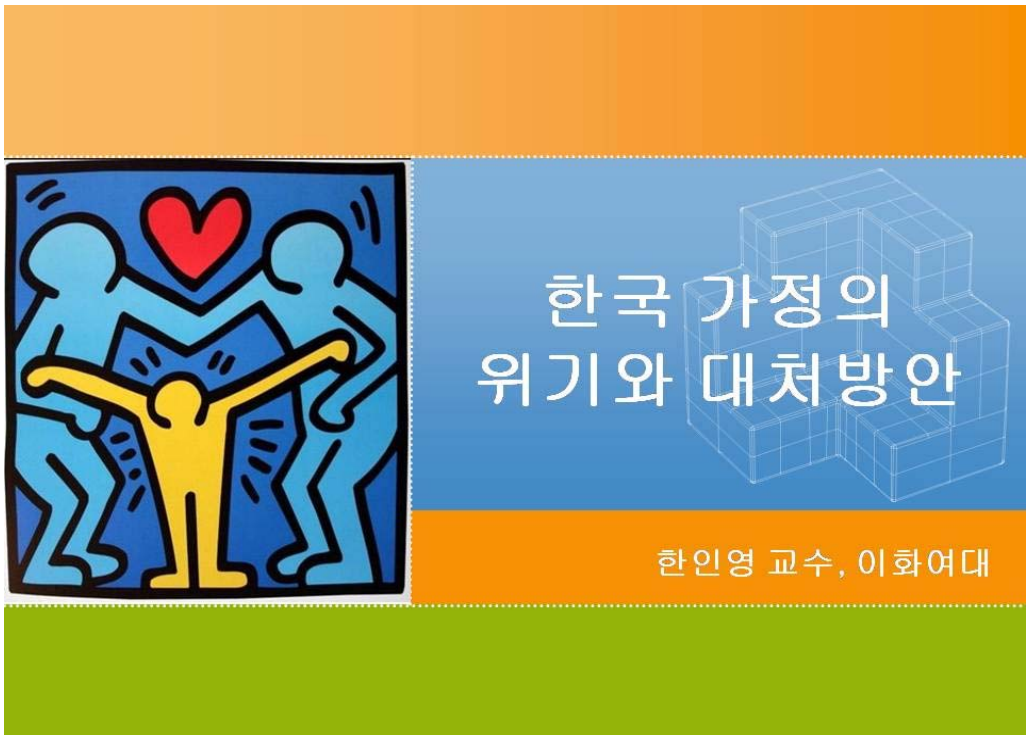
분노조절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

@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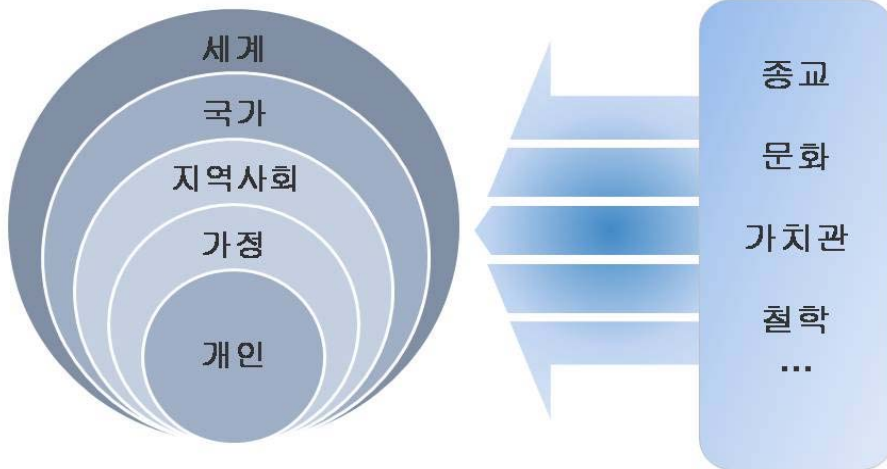
사회전체의 성숙
국민정신건강 고양
공교육의 성숙
직장 가정강화프로그램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형태 수용
부부 중심의 성문화

단기적으로는 아동양육관련 지지체계 확립
지역의 특성, 부부들의 욕구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
교회의 가정사역 강화





세계 속의 가정



2



국제적 추세



영성의 중요성

정신건강의 중요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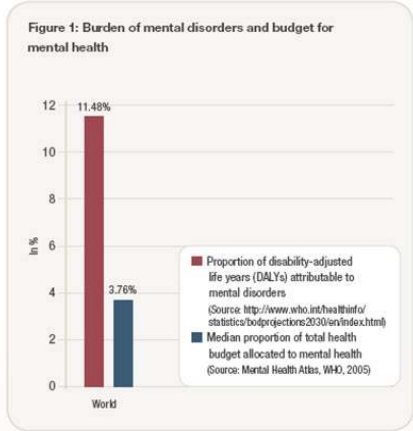
3



국제적 추세



❖ 정신건강 문제



【출처: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 WHO, 2008】

❖ 장애로 인한 손실 건강년수(DALY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정신장애로 인해 손실되는 비율이 약 12%에 해당함.

❖ WHO는 전세계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개입을 위해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 진행 중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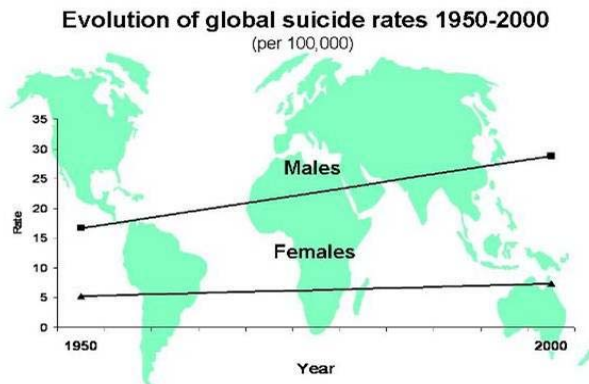


국제적 추세



❖ 자살률

- WHO 회원국 대상 조사 결과 매40초마다 1명이 자살로 인해 사망.



【출처: WHO SUPRE Home】
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harts/en/index.htm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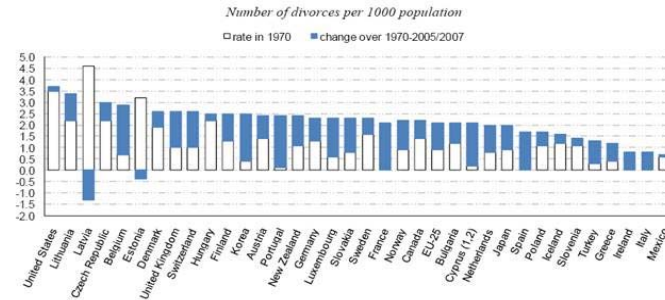
국제적 추세



❖ 이혼율

- OECD Family Database(2010.01) 에 의하면, 1970년~2007까지의 이혼율 증가 추세.

Chart SF3.1.E: The increase in crude divorce rates in all OECD countries from 1970 to 2006/2007¹



¹ Data refer to 2005 for EU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France and to 2006 for Germany, France, Iceland, New Zealand, Turkey and the US.
² and ³, see notes 2 and 3 to Chart SF3.1 B
 Source: Eurostat and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출처:OECD Family database, 2010]



한국인의 정신건강



유교문화와 서구문화의 혼재

알코올, 마약, 도박중독 증가

정신장애 유병률 증가

성격장애

우울증, 자살의 증가

성 정체성 혼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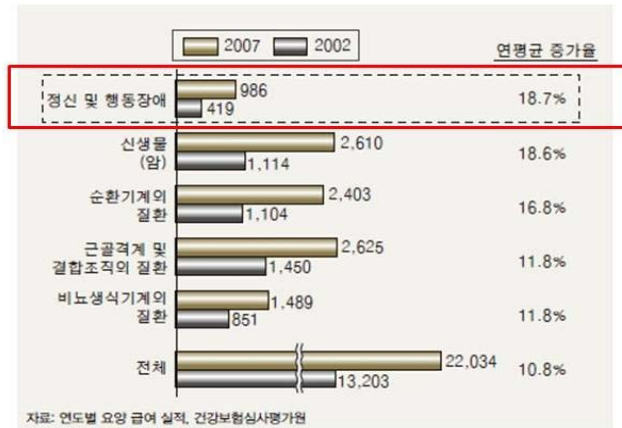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한국인의 정신건강



정신장애



8



한국인의 정신건강



자살



9



한국인의 정신건강



❖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 작년 알코올 의존증 진료환자 7만명
 - 2005년~2009년: 35% 증가
- 대검찰청(2007)
 - 2007년 국내 마약류 중독자 총 1만 6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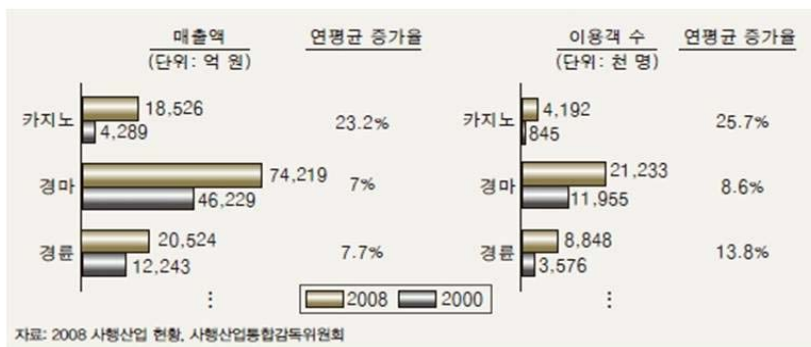
10



한국인의 정신건강



❖ 도박중독



사행산업 주요현황(2008)

11



한국인의 정신건강



12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상대평가 제도의 부정적 영향

학년별 체계적 성교육보완 필요

갈등해결 연습 부재

의사소통기술 훈련 부재

“다름”에 대한 수용 부족

13



부모교육 필요성



관계의 학습

양육과 발달단계 관련 교육

성교육

재정관리교육

신념에 대한 토론

14



한국 가정의 위기- 이혼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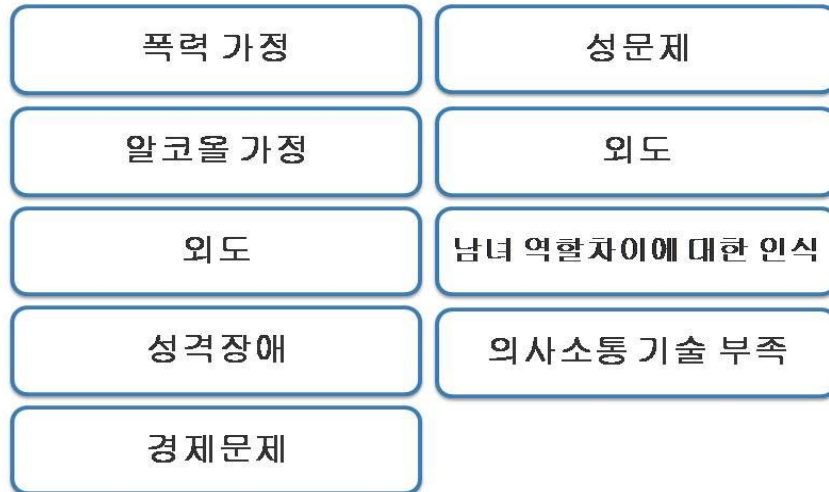
❖ 이혼율 (통계청, 2009)

	2000	2002	2003	2005	2007	2008	2009
이혼건수 (천건)	119.5	144.9	166.6	128.0	124.1	116.5	124.0
조이혼율 (연구천명당 건)	2.5	3.9	3.4	2.6	2.5	2.4	2.5
유배우이혼율 (유배우천명당 건)	5.3	6.3	7.2	5.5	5.2	4.8	5.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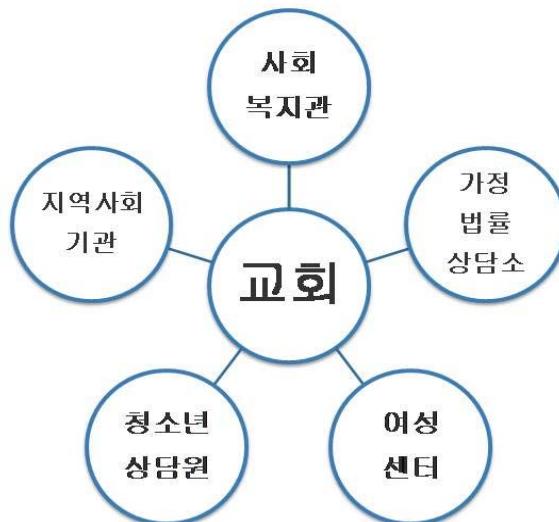
한국 가정의 위기- 이혼의 원인



16



교회의 역할



17



교회의 가정사역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남성 여성의 차이

가정사역 강화 프로그램

부모 양육 기술 교육

전문가 집단 필요

혼전부부 교육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발달단계별 교육

의사소통 관련 교육

분노조절 교육

18



외국 교회의 가정사역 사례



❖ 플로리다 주 Calvary Chapel

- 한부모 가정 부모 위한 사역
: 자녀 양육 고민, 신앙적인 양육방법,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 텍사스 주 Woodlands Church

- 이혼자 치유 워크숍 : 이혼과 회복, 지지모임
- 이혼자녀를 위한 워크숍 : 회복 프로그램 제공

❖ 조지아 주 Hopewell Missionary Baptist Church

- 가정폭력 경험자를 위한 프로그램

19



직장과의 연계



피고용자 가정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교육

부부성교육

자녀양육기술 훈련

금연, 절주 프로그램

건강 관련 교육

20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

갈등중재의 필요성

외도

폭력

분노조절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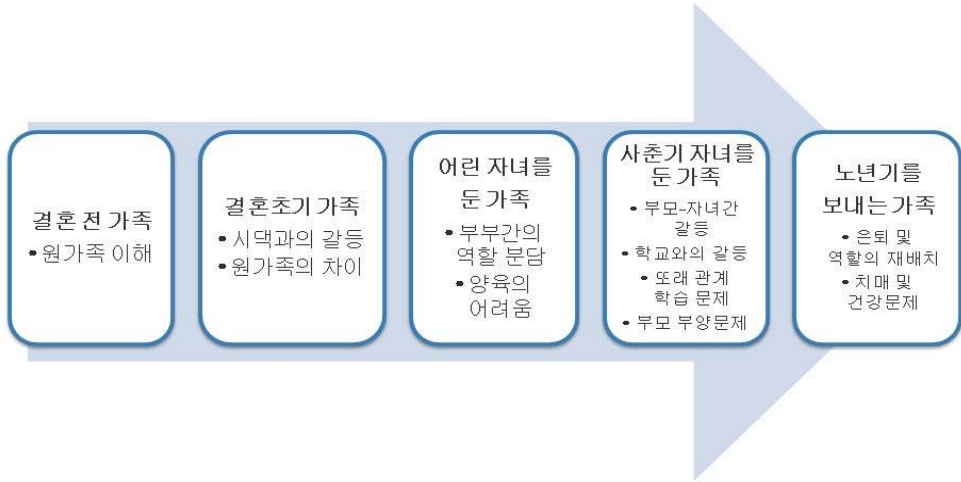
21



위기 가정 대처 방안



❖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과업 이해



위기 가정 대처 방안



❖ 의사소통 기술 훈련





위기 가정 대처 방안



❖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

양심형	자신만만형	감정기복형	경계형
헌신형	고독형	유유자적형	소심형
별종형	모험형	자기희생형	공격형

24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행복한 가정

장기 대책

- ✓ 사회전체의 성숙
- ✓ 국민정신건강 고양
- ✓ 공교육의 성숙
- ✓ 직장 가정강화 프로그램
- ✓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 형태 수용
- ✓ 부부 중심의 성문화

단기대책

- ✓ 아동 양육 관련 지지체계 확립
- ✓ 지역의 특성, 부부들의 욕구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
- ✓ 교회 가정사역 강화

25

미혼모의 실태와 교회지원

애란원 한 상 순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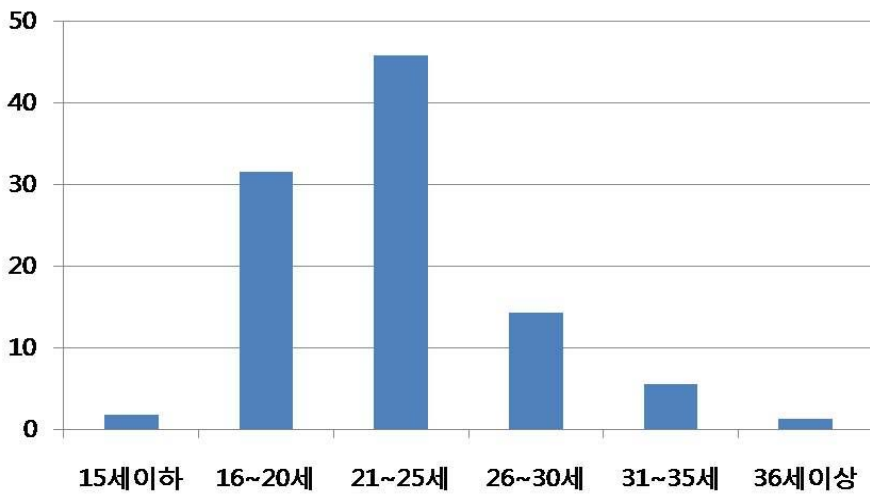


-사례 발표-
미혼모 실태 및 교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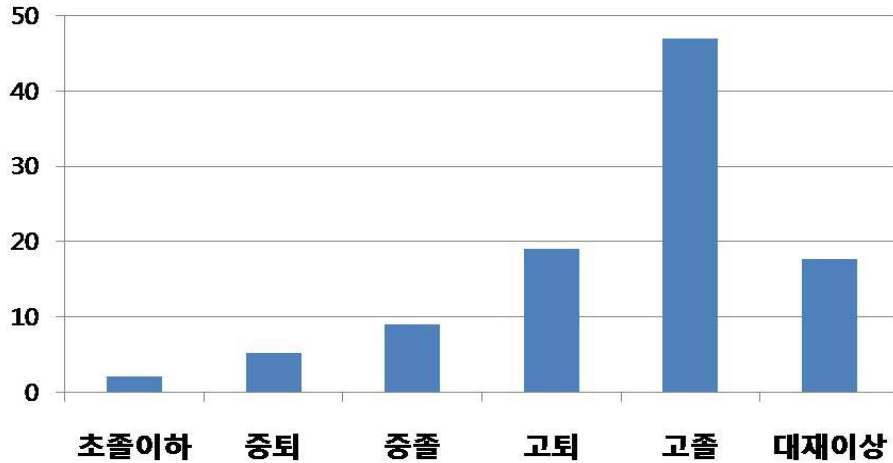
1. 미혼모의 실태



연령별 인원



학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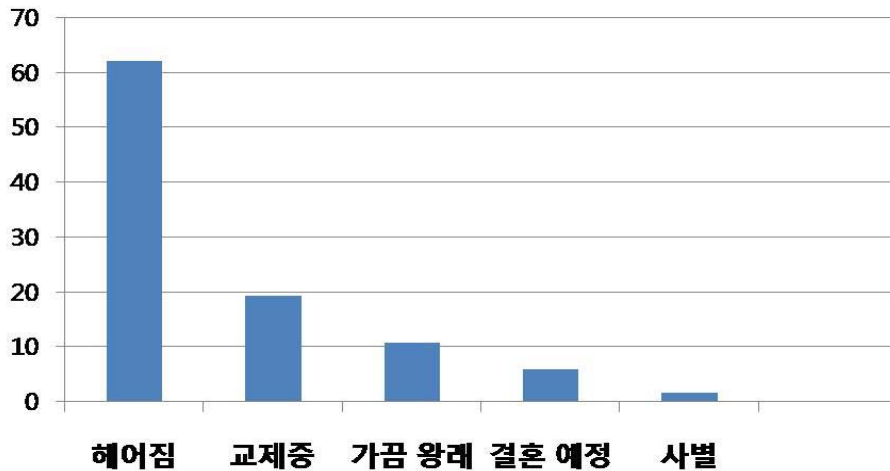


자립 기반 및 가족. 미혼부 지지

- 직업을 가진 자 10%미만 , 자격증 소지 5%미만
- 직업교육 받은 자 5%미만
- 50%이상 이 구조적 결손 / 70~80%이상 이 가족기능 해체
- 가족의 거부
- 미혼부 자립기반 취약
- 미혼부의 공동 책임의식 결여로 미혼부의 지지 미약



미혼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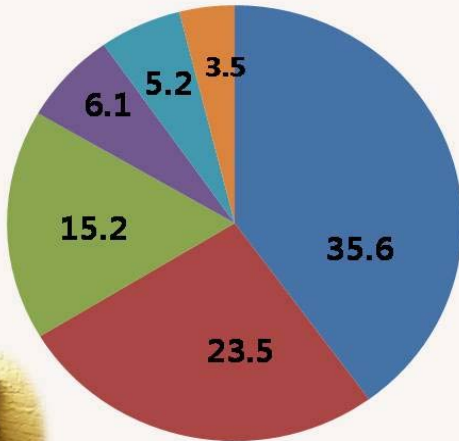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 기반

- 사회적 냉대, 편견
- 위기상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 사회의 제도적 지원 열악
- 서비스전달체계의 혼란
- 위기임신~ 지역사회 자립까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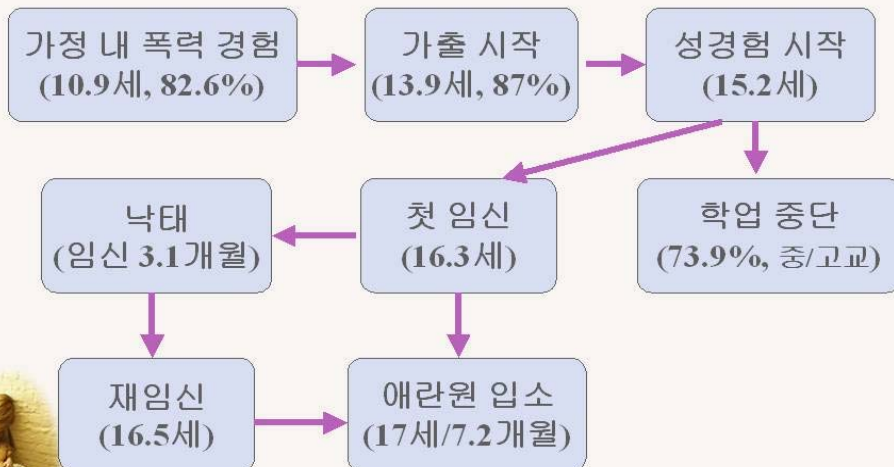
가장 힘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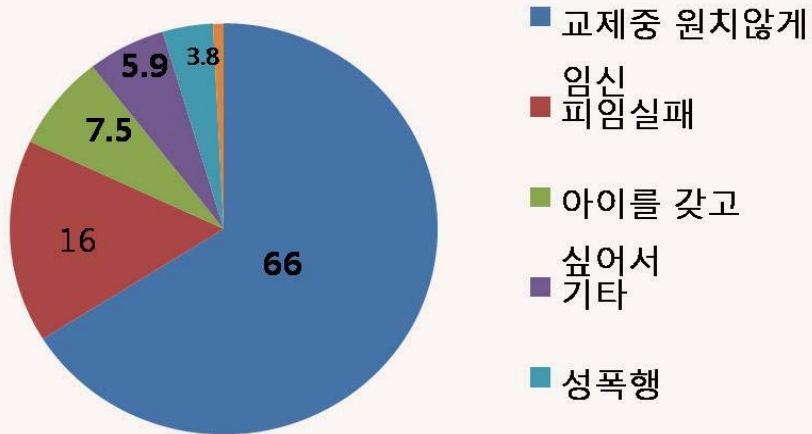
- 마음의 혼란
- 경제적인 어려움
- 가족과의 관계
- 어려움
- 미혼부와의 관계
- 학업 문제
- 아이 문제



십대모 임신 경로



직접적인 임신 이유



임신 후 분만 전 삶의 경험

- 직장, 학업 중단
- 가족,주변의 임신사실 거부 낙태, 입양 강요
- 가족, 친구, 직장으로부터 도피 및 관계단절
- 아기아빠와의 결별
- 거처, 생계, 산전진료 어려움
- 술, 담배 문제 및 태내 아기 문제 해결
- 자원 search



임신 후~ 분만 전 심리상태

-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부모됨에 대한 당혹감
- 장애아, 조산아 가능성 걱정, 분만의 두려움
- 신체의 변화로 외출시 주변 시선 인식
- 낙태/입양/양육 결정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가며 반복
- 아이와 애착관계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불안함
- 젊은 시기 상실에 대한 상실감, 우울감
- 자신의 또래와 다른 점에 대해서 미래 & 대인 관계의 불안감
- 아이 아빠에 대한 양가 감정, 부모나 가족의 고통, 시선 부담감



임신후 분만 전 태아에 대한 심정

‘임신 초기에는 태아보다는 임신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아 자고 나면 꿈이길 간절히 바랬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가족, 아기아빠, 친구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의논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여 아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거나 애정을 느낄 여력이 없었어요’

‘산전 진료 시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 낙태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 6개월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에 대해 궁금해지고 점점 더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애정이 느껴졌어요’



낙태 경험

임신한 미혼모	출산한 미혼모	낙태한 미혼모
150,467명 (100%)	6,470명 (4.3%)	143,997명 (95.7%)

2005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통계



낙태 미혼모의 특성

- 기혼 파트너, 강간, 성매매 등 사회적 인정이 어려운 임신
- 단기적인 낮은 관계성의 사قم
- 아기아빠가 심하게 심리적 상처주거나 헤어짐
- 부모나 아기아빠의 낙태 강권 등 혼전임신 허용도 낮고
- 혼전순결과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
- 학업,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큰데 중단될 위기

신체 변화를 견디기 어려움

낙태 경험 친구 있고 낙태 외 현실적 대안 없음



낙태 미혼모의 심리상태

- 정서장애 50~60% (이 중 30%는 심함)
낙태 경험자의 20~30%는 PTSD 증상 보임

< 일반적인 심리상태 >

- 허탈감 및 막연한 슬픔
- 죄책감 및 자존감의 저하
- 유산 합병증에 대한 염려
평생에 마음의 짐, 상처



< 좀더 심각한 심리상태 >

-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었다
- 유산 합병증에 대한 건강 염려증
- 건강하지 못한 파트너 선택으로 다수와 데이
트, 재임신,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함
- 낙태 후 생긴 아이에 대한 과도한 보상심리
- 결혼에 대한 기대감 저하. 양육선택
- 낙태 관련 감정, 생각, 사람, 장소, 사물 회피
- 불면증, 불안감, 우울증, 약물 남용



미혼모 입양

· 입양 아동 수 : 미혼아동 수

입양 아동 수 : 미혼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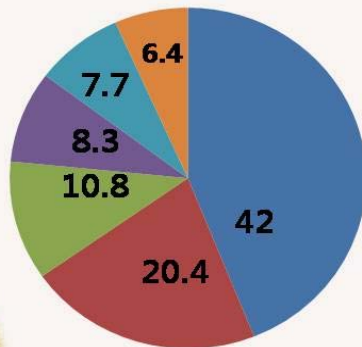
2,556명 (국내 1,306, 국외 1,250)
: 2,170명(84.9%)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



입양 경험

* 입양 보내는 이유



-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
- 내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 직장(학교)를 유지하려고
- 가족들의 반대



입양 결정시 힘들었던 점



분만과 친권포기 시 심리상태

- 외로움과 고통의 공황 상태에서 산고를 치른다
- 포기 서류 싸인은 심리적 외상을 주는 사건
- 아이를 잃은 슬픔 표현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감정 억제
- 끝없는 외로움, 우울함, 그리움, 아이에 대한 걱정을 지닌 채 퇴원
- 퇴원 후 점점 상실감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짐
- 애도상담 이 없을 경우, 아이를 생각나게 하는 시설에서 망연히 퇴소
- 입양가족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기쁨이 동시에 존재
살이 일상에 떠밀려 돌아감으로 슬픔이 내면화



포기 후 2년 이내 심리상태

- 귀가 후 겉으로는 임신 전으로 돌아간 듯 보임
- 죄책감, 수치심, 우울증, 상실감 더욱 깊어져 대처에 큰 어려움 느낌
- 주위에서 잊고 지내라는 조언으로 슬픔 표출 제한
- 아이 잃어버리는 꿈/아이/ 아기아빠와 사는 꿈
- 거리, 쇼핑몰에서 아기/아기용품 보고 따라감
- 약물남용, 폭음, 무절제한 성생활로의 심리적 도피
- 출산일, 출산장소, 싸인 사건 등 포기 관련 중요 사건 기억 못함
- 입양 권했거나 관련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 자신을 아무도 이해못한다고 생각/가출 또는 집에서만 고립 생활



포기 후 2년 이후 심리상태

- 다시 결혼, 다른 자녀를 가질 경우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낮음
- 소수가 배우자에게 포기한 아이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함
- 상실감과 고통을 여전히 경험하거나 더 악화되기도
- 아이 생일등 포기 를 생각나게 하는 기념일에 슬픔이 더 심함
- 입양 보낸 아이가 딸이면 자신과 같은 미혼모가 될까봐 걱정
- 포기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 함



친모증후군 (Birth mother syndrom)

-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고통과 PTSD 증세
: 충격적인 회상, 악몽, 불안, 기피 또는 공포반응들
- 자존심의 상실과 수동성
: 꿈, 목표 포기, 무력감, 가치상실감, 피동적 자세
- 겉- 완벽, 정상, 내면- 수치심, 자기저주, 고립감
- 감정이 친권포기 순간에 멈춤 . 자기학대
- 설명되지 않는 이차불임 , 극과 극을 오가는 생활



양육 결정

-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던 직장생활 경험이 있을수록
- 자립계획이 있을수록
- 아동으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기대감
- 미혼부와 긍정적인 관계 or 결혼기대 or 지지적일수록
-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나 접촉이 많을수록
-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애착을 더 느꼈을수록
- 입양 상실감과 죄책감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 입양아동은 잘 자라지 못할 거라는 신념이 강할수록
-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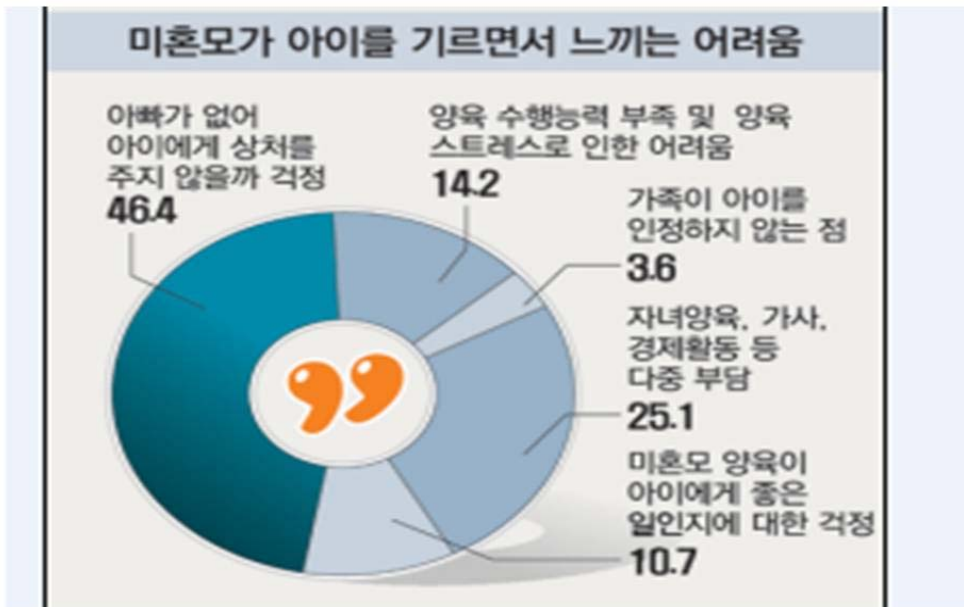
• 미혼모의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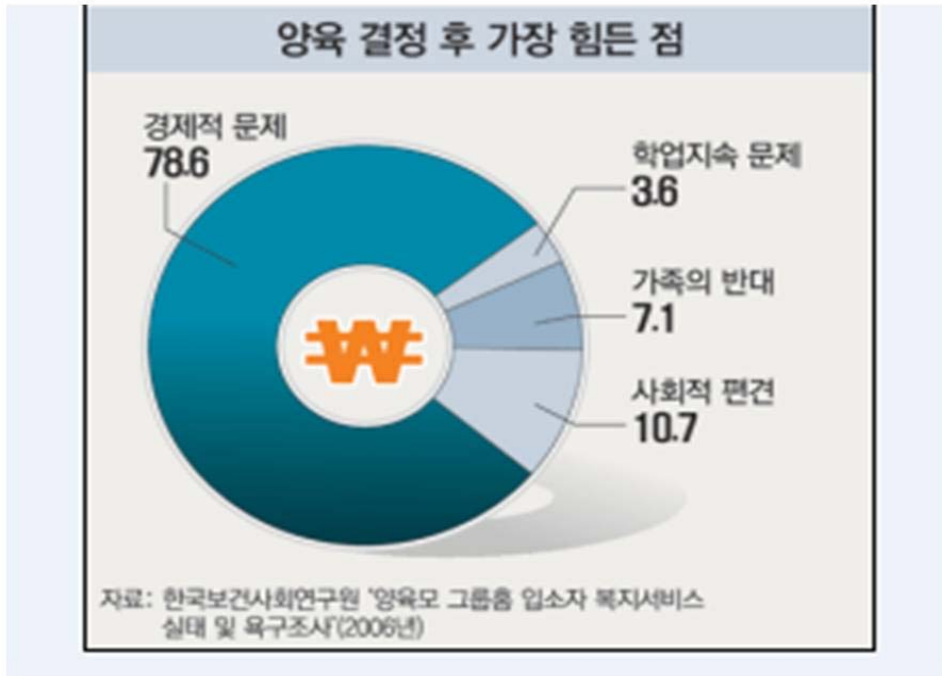
2008년 통계청의 혼인외 출생자 수로 추정

혼인외 출생자	미혼모양육아동	미확인 아동
10,533	3,339	5,024 (4,034명:법원등록 한 국내입양아동 수)



2010.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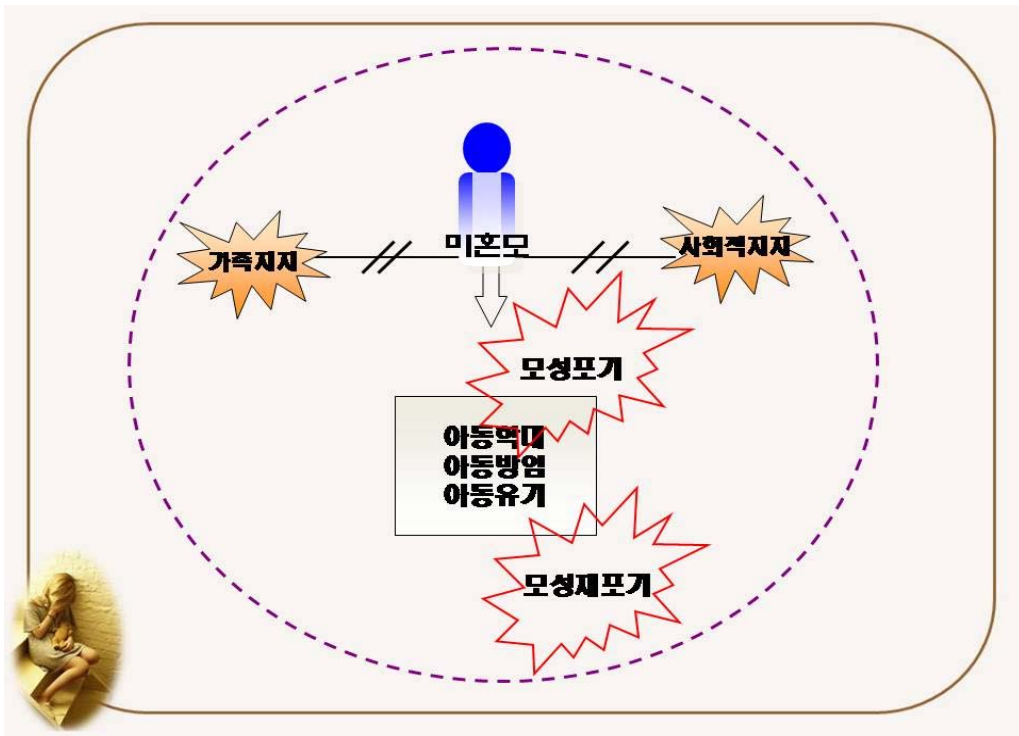




양육 미혼모의 심리상태

- 더 가치 있는 사람 된 느낌 과 삶의 목표가 더 명확해짐
- 부모 역할에 만족감, 힘들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 자신의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되려는 마음
- 낮은 생활 만족감 과 부모인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함
- 아버지 부재로 아이에 죄책감, 미혼부와의 결혼, 양육 책임 기대감
- 아이가 사회에서 낙인 받을까 봐 걱정
- 가족, 한부모 사이에서 거부로 소외감
- 10대 모 : 노는 즐거움 포기에 심리적 어려움





아동학대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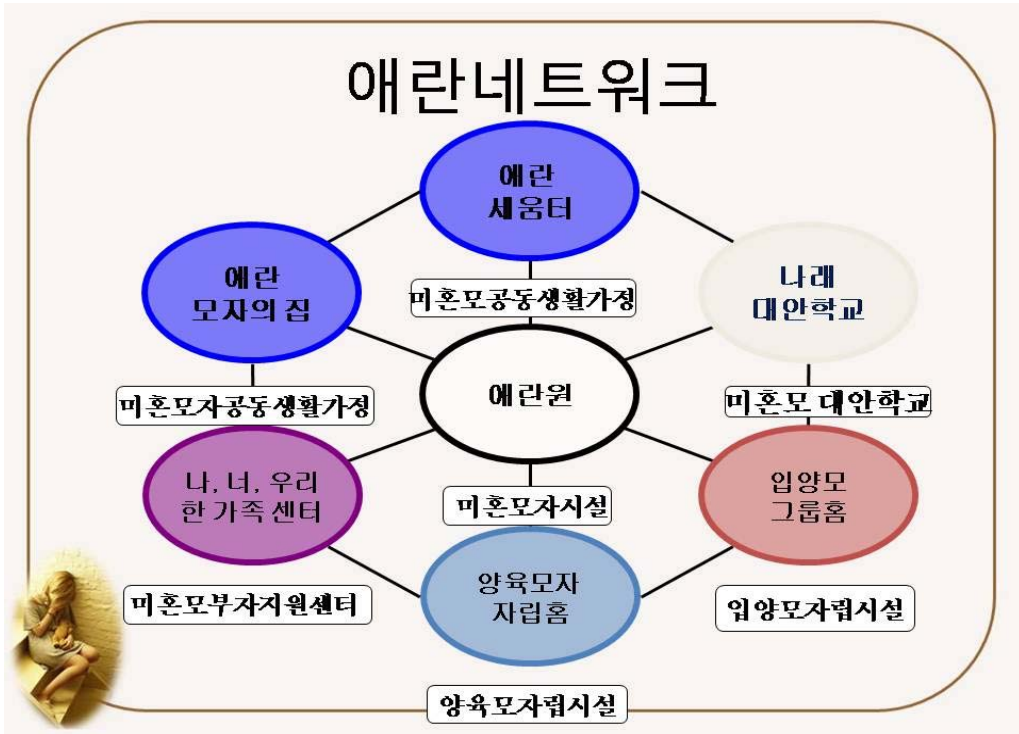
2 가구 유형별 아동학대 현황

연도	계	일반 가정	편부가정				편모가정				미혼 부모 가정	시설 보호
			사별	이혼	가출	별거	사별	이혼	가출	별거		
2002	2,478	619	37	472	333	43	61	154	47	37	30	10
2003	2,921	696	63	594	344	53	62	207	52	59	35	57
2004	3,891	950	53	796	353	83	69	265	86	82	70	90
2005	4,633	1,173	107	929	444	79	101	342	85	131	85	88
2006. 1~6	2,561	704	55	468	209	61	44	189	53	65	60	65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유형별 아동학대 현황"



미혼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 교회의 지원

예능 교회의 지원 사례

1. 시작 동기
2. 발전 과정
3. 현재의 지원



추후 필요한 교회의 지원

교회가 미혼모 Issue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역할지 고민 우선되어야: 미혼모 돕는 방법으로 일시
소액지원은 효과 없음 넘어서 오히려 자립 해칠 수 있음

- 1) 생명 운동 or 혼전 임신 예방
 - 2)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아동의 건강한 성장
 - 3) 미혼 한부모 가정의 위기 개입 및 자립지원
 - 4) 애란 네트워크 지역별 확대 및 운영 지원
 - 5) 열악한 미혼모시설의 인력 및 재정 지원 etc.
- 특히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지원하도록.



자살 유가족들의 이해와 상담

하 상 훈 원장

(생명의전화)

1. 들어가는 말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자살로 인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그와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또한 자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려 자살을 유발하게도 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5,413명이 자살하여 인구 10만 명당 31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평균 6명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10~20배가 된다고 한다. 자살이나 자살기도로 인해 가족들과 동료, 친지 등 유가족들(survivors)이 받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까지 고려한다면 자살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자살 이후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상실반응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자살 유가족들의 이해와 대처방안

1) 자살로 인한 상실의 영향

일반적인 상실에 비해 자살로 인한 상실(loss) 경험은 일종의 폭풍우 같아서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살아남은 유가족들의 삶을 마비시키고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유가족들은 상실로 인해 떨어진 계곡에서 벗어나 정상시의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변화에 직면해야 한다. < 표 1 >에 의하면 Kenneth R. Mitchell과 Herbert Anderson은 6가지 유형으로 상실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자살 유가족들은 상실로 인해 아래 6가지 유형의 상실을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1 > 6가지 상실의 유형과 내용

번호	유형	내용
1	물질적 상실	지금까지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었던 물질적 대상이나 친숙한 환경에 대한 상실.
2	관계의 상실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사랑, 경험, 믿음, 싸움 등을 통한 정서적, 신체적 교류와 같은 관계의 상실.
3	심리내적 상실	정서적으로 중요한 자신의 이미지, 기대했던 가능성, 미래에 대한 계획, 꿈 등의 상실로 예측 못한 인생행로로 밀어 붙임.
4	기능적 상실	신체기능의 저하나 무기력으로 일상의 기초적인 기능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5	역할의 상실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조직망 속에서 위치를 상실하여 정체감을 희미하게 만들.
6	체계적 상실	지금까지 잘 지탱해 온 상호교류적인 행동이나 생활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황.

2) 자살 유가족들의 비탄 감정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충격과 고통이 뒤따른다. 그들이 겪는 비탄 감정은 강렬하고, 복합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보통의 비탄 감정은 < 표 2 >와 같다. 이러한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이고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적인 비탄의 과정이다.

< 표 2 > 자살 생존자들의 비탄 감정들

충격, 고통, 분노, 단념, 절망, 슬픔, 거부, 자포자기, 비탄, 무력감, 부정, 죄책감, 수치감, 불신, 긴장, 무감각, 외로움, 혼돈, 불안, 우울

〈 표 3 〉의 「미군 자살예방 지침서」에는 자살소식을 접하는 유가족들은 공통된 반응을 보이는데 3단계의 반응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일반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자살 유가족들을 이해함으로써 사후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표 3 〉 자살 유가족들의 공통적인 반응

1차적 반응	충격	유가족은 전기충격을 받은 듯 무감각해 짐으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최소화.
	부인	유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 하려는 하나의 방어기제.
	무능력감	유가족이 자살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죄책감을 가짐.
	안도감	유가족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자살을 종용하고 안도감을 느낌.
	버려진 느낌	유가족들은 자살자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함.
	비난과 책임전가	유가족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
2차적 반응	분노	유가족들은 자신과 자살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분노.
	죄책감	유가족들은 자살자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강하게 느낌.
	수치감	유가족들은 수치감으로 자신의 슬픔이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함.
3차적 반응	자살이유에 대한 탐구	자살이유를 밝히려는 노력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을 표시하는 행위.
	단절	유가족들은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끊어버리고 대인관계를 단절.
	우울증	유가족들은 체중감소나 불면증, 무가치감, 우울감을 호소함.
	자살의 속고	유가족들은 일반인들보다 80-300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보임.

3)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성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우리들에게 많은 슬픔과 고통을 남긴다. 사별은 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상실함으로써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반응패턴을 말한다.

사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탄(grief) 반응이 일어난다. 비탄은 사별에 대한 단순한 정서적 반응으로 깊은 슬픔의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사별이 되었을 때 애도(mourning) 과정을 거쳐서 사별로 인한 고통을 줄여 나간다. 비탄은 사회적 애도의식(장례)을 통해 고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기억, 생각을 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별로 인한 고통은 충격, 그리움, 혼란, 극복, 재구성의 단계를 거치며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 표 4 >에서와 같이 자살로 인한 사별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표 4 >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성

번호	종류	내용
1	고의성	자살의 고의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능력감, 버림받았다는 느낌, 분노를 일으킴..
2	갑작스러움	자살은 유가족들에게 사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지 못하므로 심리적 균형이 무너져 위기상황을 촉발 함,
3	폭력성	자살을 180도 돌아선 살인. 이 살인적 폭력은 대개 자살자의 주변인물을 향하고 있음.
4	수치심	사람들은 주변의 유가족들을 자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음.
5	죄책감	유가족들은 자신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한탄스러워 하며 깊은 죄책감을 느낌.
6	짧은 장례의식	자살자 가족들은 사망소식을 알리지 않고 간단히 장례를 치름. 따라서 정상적인 비탄과정을 거치지 못함.
7	왜곡된 의사소통	자살의 책임을 자살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희생양을 만들기 쉬움.
8	사회적 격리감	주변 사람들은 유가족들에게 뚜렷하게 위로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피적 반응을 보임.

4) 자살 유가족들의 비탄 경험 경감 및 치유 지침

자살유가족들은 신체적, 정서적 비탄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의 종류와 비탄경험의 경감 및 치유 지침이 아래의 < 표 5 >, < 표 6 >에 예시되어 있다.

〈 표 5 〉 신체적 경험과 경감 및 치유 지침

신체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혹은 근육의 긴장 * 가슴의 통증 혹은 압박 * 잠을 못 이룸 * 신경과민, 혹은 공황 * 식욕의 상실 혹은 과식 * 죽은 사람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환각 경험 * 두통, 혹은 위장 장애 * 집중할 수 없음
경감 및 치유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에게 검진을 받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살핀다. * 비탄의 초기단계에서 스스로 일하는 것보다 억지로 더 많이 먹지 않는다. 식성에 따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 평화롭고 조용한 걷기 같은 약간의 운동을 한다. * 신경과민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카페인(커피, 콜라, 차 등)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알코올은 억제제이다. 알코올은 정상적인 수면형태를 저해한다.

〈 표 6 〉 정서적 경험과 경감 및 치유 지침

정서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픔과 우울 * 망각 * 고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과 분노 * 다른 사람, 신, 혹은 고인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분노 * 쉽게 울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울음 * 감정의 동요 * 주변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느낌 *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음 *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낌 * ‘만약 일이 다르게 일어났더라면’라는 생각에 사로잡힘. *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 왜 그 죽음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의심 혹은 질문 * 가출의 욕망 혹은 상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매우 분주해짐 * 강한 감정으로 압도될 때 미칠 것 같은 느낌
-----------	---

<p>경감 및 치유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한다. 압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긴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일을 기억하라. 좋은 기억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비탄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탄을 다루는 과정을 평가하지 않는다. * 종종 울 수도 있고 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울 때 치료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저자 Jean G. Jones는 “울어야 할 때 울라. 그리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라.” *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죄책감에 직면한다. * 정상적인 비탄 경험에 친숙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비탄 작업에 기꺼이 참가한다. * 비탄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비탄 경험과 정서는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스스로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보조에 맞추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 된다는 것을 안다. * 삶에서 다른 사건들이 비탄 상황일 될 수 있다.(배우자, 아이들, 일, 혹은 친구들과의 불화), 이것들이 많은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며, 비탄 과정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 가족 안과 밖에서 지원체계를 발견한다. 그러나 가족도 역시, 깊이 비탄에 빠져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독립적이 되도록 양육되어 왔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비탄과정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 이전 비탄 스타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된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다. 비탄에 대해서 읽고 배운다. 새로운 대처기술을 개발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도움을 받는다. 희망을 갖는다.
---------------------------	---

5) 자살 유가족의 반응과 대처 지침

(1) 자살자 가족들의 일반적인 반응

① 침묵 :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면 주변 사람들은 고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섭섭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한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와 보살핌을 통해서 사별로 인한 고통의 위기를 넘어가게 한다. 그러나 자살자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의 조문 없이 서둘러 장례를 치러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자살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지키지 못할 비밀유지 : 어떤 가족은 자살사건에 대해 유서를 태워 버리거나 결정적인 증거들을 숨긴다. 그러나 이 비밀은 새어나가기 마련이고 가족들을 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담자는 유가족이 자살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2) 자살 유가족의 비정상적인 반응

- ① 자살자나 자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 ② 가족이 애도하는 것을 금지시켜 슬퍼하지 못하게 한다.
- ③ 자살자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사람을 고의로 소외시킨다.
- ④ 자살에 대해 완결되지 않은 문제를 자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 ⑤ 자살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유지하여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3) 대처방안

- ① 유가족들이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③ 언제든지 상담자나 성직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 ④ 온 가족이 함께 감정을 표현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한다.

(4) 응급조치

① 유가족들의 마음에 동병상련(同病相憐) 하라. 상담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편견 없이 경청한다.

②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왜?’라는 의문을 이해하라. 자살 사건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들의 의문을 이해하고 공감적으로 대처한다.

③ 유가족들이 어떠한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어라.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④ 유가족들이 일상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루 빨리 일상 업무로 돌아가도록 도와준다.

⑤ 종교적인 위안을 주도록 하라.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이들을 종교적으로 위로해 주고 종교가 없으면 이해심 있게 들어주며 이 위기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⑥ 자살의 여파에 대해 설명해 주어라. 자살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 충격에서 벗어 나려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⑦ 숨겨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라. 자살사건에 대해 서로 숨기고 있던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⑧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라. 혈압상승이나 불면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지 살펴 필요하면 의사를 만나도록 한다.

3.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상담 개입

한 사람의 자살이 유가족들에게 끼치는 위기는 일종의 격변적 위기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자는 지원적 행동과 직접적인 행동의 균형을 맞추면서 4단계의 개입 차원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감차원의 개입**(empathy level intervention) : 살아남은 사람들의 독특한 감정을 듣고, 나누면서 마음속에 쌓인 속앓이를 언어화하여 털어 놓는 단계이다. 유가족들과 함께 있어줄 때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2) **촉진차원의 개입**(facilitation level intervention) :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지지해 주면서 내적 자원들을 활기 있게 증가시켜 주는 단계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표현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억압감과 압박감으로부터 놓임을 받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다. 자살사건을 수용하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3) **확신차원의 개입**(assertive level intervention) :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언급이나 행위를 통해 자살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상적 복귀로 회귀시키는 예비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자아 되살리기와 기억하기가 있다. 자아 되살리기는 자살자가 차지하고 있는 자아의 내면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기억하기는 거리감을 가지고 자살자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개입방법이다. 자살사건이나 내용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다.

(4) **조정차원의 개입**(control level intervention) : 살아남은 이들의 잔여 에너지를 강화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시켜 위기를 다스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관계의 개선과 재통합이 있다. 관계의 개선은 수치감, 죄책감, 무의미성의 위협, 실패감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내면세계와 현실세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 목적, 가치, 역할이 있음을 알도록 돕는다. 재통합은 원상복귀를 뜻함. 원상복귀는 공동체로의 복귀를 뜻한다.

4. 맺는 말

자살자의 유가족 및 친인척과 상담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은 자살 유가족들이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어디서도 상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자살로 인해 그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감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살자를 따라 죽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함께 살던 지역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무작정 떠난 사람도 많았다. 자살자 유가족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로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이 용기를 갖고 지역사회에 복귀해 살아가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살 유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나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나 사회봉사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사후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살 유가족과 유가족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살 유가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그들의 충격과 슬픔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도소, 군부대, 교회 등 공동체에 자살 사고가 있을 때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다시 정상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각 공동체 단위의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 박상찰조영범. 199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 자살예방지침서. 서울: 학지사
- * 생명의전화 편역. 2007. 「WHO가 권장하는 자살예방지침서」
- * 생명의전화 편. 2009. “자살자 유가족 다시 세우기 STEP 2” - 지도자 지침서
- * 이기춘. 2006. “제8차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 자료집” - 자살사후예방방법. 라이프라인 자살예방센터.
- * 통계청. 2009. “사망원인통계결과”
- * 이상훈. 2009. “자살예방 전문 강사 지원을 위한 워크샵 자료” - 자살사후예방방법, 라이프라인 자살예방센터
- * Appleby, M. 1992. *Surviving the Pain After Suicide*. Tony Wolf & Son Printers.
- * Granello, H. D. & Granello, P, F. 2006. *SUIDE : An Essential Guide for Helping Professionals and Educators*. Pearson Education, Inc.
- * Mitchell, K. R. & Anderson, H.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vs : Resources for Pastoral Care : The Westminster Press*. 36-46.
- * Parkes, C. M. 1980. “Bereavement Counseling: Does it Work?” *British Medical Journal*, 281,3-6
- * Parkes, C. M, & Weiss, R. S. 1983. *Recovery from Bereavement*. New York : Basic Books
- * Ross, E. B. 1977. *After Suicide*. Perseus Publishing.
- * The Maine 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 A Program of Governor Angus S. King, Jr.
- * And the Maine Children's Cabinet. 2002. “Maine Youth Prevention, Intervention and Postvention Guidelines-A Resource for School Personnel.”
- * WHO. 2000. “Preventing Suicide-How to Start a Survivors' Group.”
- * Worden, J. W. 200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이범수 역. 2009. *유족의 사별슬픔 상담과 치료*. 서울 : 해조음
- * Wright, H. N. 1985. *Crisis Counseling*. Here's Life Publishers.

〈부 록 1〉

자살의 슬픔을 회복시키는 6가지 지침

1.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달린 일이니까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잘 예측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00달이나 지났어. 이제는 이겨내야지.” 당신도 스스로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비통하며 슬퍼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분노나 죄책감, 우울과 같이 다른 형태의 슬픔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비통한 마음이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이 해결되어야 슬픔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 목에 있던 숨막히는 응어리가 가시고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옥죄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 눈물

당신 자신도 울게 하세요. 눈물은 치료가 됩니다. 눈물을 흐르게 내버려두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쓸모없는 화학물을 운반하고 배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울 수 없다면, 당신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별 모임과 같은 안전한 곳을 찾아보세요. 대체 그런 눈물이 나오는지 모를 만큼 엄청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울 수도 있습니다.(꼭 눈물을 흘려야만 당신이 떠나간 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눈물이 탈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3. 말하기

당신이 사랑한 사람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줄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말은 죽음을 마무리하고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미신을 쫓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은 친구나 친척들이 당신을 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가 당신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4. 스킨십

사랑한 사람과의 포옹과 스킨십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죽음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 방어적인 벽을 쌓게 됩니다. 로봇이나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포옹이나 스킨십을 받게 해주세요. 포옹을 해줄 아무런 가족이 없는데 포옹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친구와 ‘치유의 포옹’을 가질 시간을 만드세요. 아이들의 경우 그들이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포옹과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5. 신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당신 스스로를 믿어야만 합니다. 종교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남겨놓은 수많은 것들과 싸우면서 느끼는 분노가, 당신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줄 수 있습니다. 신뢰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재발견하는 성장과 학습의 경험입니다.

6. 분투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슬퍼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서 겪는, 끊임없이 힘들고 고된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약착같이 견뎌야만 하는 고생이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일이 어쩌면 이보다 더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고, 더 잘 먹어야 하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당신의 몸을 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부 록 2〉

자살 유가족을 위한 제언

당신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될 때까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분적인 대답을 찾아 이제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 “왜?” 라는 질문과 싸우세요.

아주 강렬한 감정에 짓눌리더라도 당신이 겪는 모든 감정이 정상이라는 것을 아세요.

분노, 죄책감, 혼란, 망각도 모두 유가족들이 겪는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애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정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럴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됐는데, 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죄책감은 용서의 시간을 거치면서 후회의 감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마음을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생각을 따라 행동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곧 행동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순간만, 오늘 하루만 견디겠다는 마음을 매일 가지세요.

당신의 마음을 나눌 좋은 경청자를 찾으세요. 말하고 싶을 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물은 치유입니다.

당신에게 치유를 위한 시간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죽음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의 역행을 겪을 것입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처럼 되돌아와 마치 슬픔의 조각, 끝나지 않는 슬픔의 조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연기하세요.

당신 자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의 고통을 인식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못한다고 말하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에게 뭘,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을 피하세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지그룹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통, 식욕상실, 불면증과 같은 슬픔에 대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어야겠다는 의지, 당신에게 웃음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또한 치유가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 분노, 죄책이나 다른 감정들은 당신이 모두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까지 닳아 없어지게 하세요. 이런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과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슬픔을 이겨내고 어찌면 단순히 이겨낸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부 록 3〉

자살 유가족의 권리장전

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나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의 느낌과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가족이나 기관을 통해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권리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더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속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평화와 자존감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자살이나 자살 이전의 사건에 상관없이 내가 자살로 인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자살로 인해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헤쳐 나가서 수용의 단계(acceptance process)로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지지그룹을 찾을 권리가 있다.

나는 수용에 도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존재로서 나 자신이 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부 록 4>

자살 유가족 다시 세우기 프로그램 개요

회기	제목	활동 목표	활동 내용
1 회기	지금 여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회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 및 프로그램 소개 • 회원소개 • 참여목적 확인하기 • 규칙 정하기 • 서약서 작성 • 사전검사
2 회기	희망 바이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으로서 느껴왔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 사고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현재 감정 느껴보기 • 감정의 소용돌이 벗어나기 • 희망 바이러스
3 회기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의 영향 살펴보기 • 유가족 자살 극복사례 살펴보기
4 회기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자신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회원들 간의 성격 및 특성을 상호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들어내기 위한 초반 작업 • 다른 구성원을 이해하는 시간
5 회기	슬픔을 넘어 사랑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과의 추억 회상을 통해 아름다운 감정을 기억하고 말 할 수 있다. • 떠나보내기 의식을 통해 고인에 대한 슬픈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추억 • 고인 기억하기 • 떠나보내기 의식
6 회기	가족은 나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유가족을 건강하게 돌보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갖는다. • 지지자원 접근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력을 키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관리 및 가족 돌보기 방법 찾기 • 유가족 지지 자원 접근 방법 공유하기
7 회기	변화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감정 및 경험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자조모임 활동을 위한 목표의식 및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돌아보기 • 칭찬하기 • 다시쓰기 • 우리의 다짐 • 사후 감사지 •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서

* 위 프로그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2009년 생명의전화에서 출간되었다.

“가정사역의 사례”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DRS) Divorce Recovery School :

이혼 가정의 건강한 자녀 양육법

“사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던 풀러신학대 심리학대학원 교수 아치볼드 하트(Archibald Hart) 박사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혼의 성인 아이’(adult children of divorce)라는 증후군을 겪기 쉽다고 말한다. 이혼은 인생에서 후유증을 남기는 하나의 외상이다. 혹은 ‘이혼 외상’(divorce trauma)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른이 이혼의 후유증으로 휘청거린다면, 어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동 특유의 자아 중심적 사고와 마술적 사고로 인해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고통스러운 상실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해 아빠나 엄마를 잃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감정을 성인까지 가지고 가기 쉽다. 또 한 쪽 부모에게 받게 되는 양육과 훈계는 정체감 형성에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자신에 대한 혼동이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부모가 얼마나 완벽한가, 부모의 문제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완벽주의 콤플렉스, 즉 ‘좋은 부모 증후군’(perfect parent syndrome)에 빠진 부모는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가로막는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 정도면 충분한 부모’(good enough parent)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혼 가정의 성공적 자녀 양육은 이혼 후 부모의 태도와 양육 방식에 달려있다. 일반 가정의 자녀와 달리, 이혼 가정의 자녀는 상실로 인해 정서적인 필요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는 양쪽 부모의 상호 보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더욱 세심한 양육을 해야 한다.

▶부모의 회복이 곧 자녀의 회복

이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혼이란 관계의 죽음을 초래하는 외상적인 상실이므로 이혼의 후유증에서 회복되려면 ‘애도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신의 상실에 대해 충분히 애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의 수치심과 배우자에 대한 쓴 뿌리를 묻어놓고 있다면, 자녀의 회복을 방해하게 된다. 역시 자녀도 자신의 삶에 닥친 상실에 대해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마음껏 슬퍼하고 분노하며 우울해 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혼회복학교에 왔던 한 사람은 강의에 참석할 때까지 교회의 담임 목회자조차 자신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먼저 부모가 이혼한 현실을 직면하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녀도 그런 현실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전 배우자에 대해 미해결된 감정도 처리해야 한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혼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신의 문제를 시인할 때, 자녀로 하여금 양쪽 부모를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부모가 이혼한 후 닥치는 상황에 대해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서는 것이야말로 자녀의 적응 수준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자녀의 애도 과정을 도와라

이혼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처럼 애도 과정을 겪게 된다. 이혼한 부모가 안정을 찾게 되는 기간은 평균 2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사, 생활 변화, 재정 문제, 재혼, 중독, 자녀 양육권 다툼 등 이혼 후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3년에서 10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들 중 43%는 애도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이혼의 후유증을 성인기까지 짊어지고 간다. 그로 인해 학업 실패, 만성적 실직, 조기 결혼, 결혼에 대한 거부감, 인격 장애, 결혼 파탄 등의 징후를 낳는 ‘이혼의 성인 아이’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충분한 애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는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은 부인, 분노, 흥정,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각 단계에서 부모는 건강한 양육법으로 자녀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녀가 아무렇지 않은 체 할 때

부모의 이혼에 대해 아이가 처음 나타내는 반응은 감정적 마비 또는 부인이다. 이혼이 발생했지만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미취학 아동은 큰 충격의 표현 없이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불시에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에 이상할 정도로 아이가 엄마를 전혀 찾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유치원에 갔다와서 친구 집에 따라 들어가면서 친구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미취학 아이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결핍을 느끼는 정도다.

초등 학령기의 아동은 상황에 대해 많이 질문하고 부모의 감정이 어렵다는 것을 지각하며 착한 행동으로 부모를 ‘위로’하려 든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은 나중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춘기의 자녀는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의 이혼 상황을 잊으려 한다. 이혼회복 모임에서 한 참석자는 자신의 딸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끝내면서 “아빠가 들어오셔서 끊어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이럴 때 부모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해 줘야 한다. 자녀가 질문을 던질 때 분명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물론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는 잔인한 솔직함은 금물이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부인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녀의 애도 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불안정한 자녀의 모습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자녀가 불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 아이의 불안을 부채질하지 말라.

▶자녀가 분노를 나타낼 때

자녀가 분노하는 것은 부모의 이혼을 현실로 자각한다는 뜻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놀라지 말라. 지금 자녀는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분노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때로 관심을 얻기 위해, 때로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 화를 내며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모든 것이 분노의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다. 자녀는 자신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모에게 분노를 표현하기 쉽다.

부모는 자녀의 분노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닫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적절하게 화낼 수 있음을 인정해 줘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공격할 때, 방어적이면 안 된다. 자녀의 분노는 두려움, 불안정, 사랑 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러나 용납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행동을 할 때, 사랑의 훈육하기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강인한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아이에게 시인하고 부모의 이혼이란 자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임을 규칙적으로 말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전 배우자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 불필요한 삼각 관계를 만들지 말라. 자녀의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될 때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젊은 부부 학교 (MB) Marriage Builders: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Marriage Builders)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것이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 토해 내는 애끓는 피눈물이 바로 이 시기부터 한 방울씩 고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존귀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청소년의 가치관의 싹도 이 시기에 엄마 아빠의 가슴 뜨거운 사랑을 미처 경험하지 못하면서 돌아나기 시작하며, 일과 성공에만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하던 아버지가 어떤 운명에 직면한 순간 기억의 끄트머리에서 건져 올린 가족의 소중함이 바로 이 시기부터 망각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 왔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한 우울증과 불신감으로 병원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어떤 자매의 얽혀있는 마음의 실타래도 바로 이 때 첫 매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부부사역팀은 바로 이 시기를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이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다하시며 탄식하신 주님의 민망함을 가슴깊이 느껴야 할 만큼 이 사역은 많은 일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신혼부부학교를 젊은부부학교로 확대 개편하여 더 많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아직 가정을 꾸미지 않은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란노의 결혼예비학교를 지원하여 시기적으로 더 앞선 예방교육을 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부부사역팀의 가정 가정은 그야말로 슈퍼맨과 원도우먼이 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몇 가정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부부사역은 결코 온누리교회 내의 사역만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교회들과 사역지체들에게 이 일을 전하고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고 또 확장시키는 일에 원함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봉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육아와 갈등과 여유없음이 영적 침체기로 이어져 젊은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역은 만남과 나눔과 위로와 권면과 치료와 봉사와 감사와 소망을 일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젊은부부사역”은 가정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범을 제시하고 그 땅에서 만나게될 가시덤불과 돌짜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기둥과 기초가 놓여야 할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을 소망하는 형제자매들을 Marriage Builders로 세우고 위로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그들과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비밀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능력을 공급받고 온전한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배우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Marriage Builders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살롬...

하 가 훈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세상의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고 허물어져가는 가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고, 회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으로 1993년 4월에 제1기가 개설된 이래 2004년 11월 현재 제44기까지 수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교회의 여러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가정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회복 프로그램입니다.

1993년 4월 2일부터 7주간의 과정으로 24지원자 가정과 더불어 개설된 제1기를 필두로 하여, 93년에 2기, 94년에 2기, 95년에 4기, 96년 7기, 97년 3기, 98년 2기, 99년 4기, 2000년 4기, 01년 4기, 02년 4기, 03년 4기, 04년 4기, 05년에 4기, 06년 현재까지 2기, 07부터 10년까지 10기를 실시하여 현재 총 60기에 걸쳐 1552 가정이 수료하였으며, 수료한 가정은 부부가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되어 교회의 여러 사역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ream Team (드림사업팀) :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의 주춧돌이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은 가정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주는 말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가정" 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인적인 성경적 삶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안에서 기독교적인 윤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 또한 매우 주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및 소형, 중형, 대형교회들은 가정사업에 관심을 갖고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수년간 수정 보완하여 훈련하는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기에 있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풍성한 삶에의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던 중 직접 찾아가는 대외협력사업팀 (온누리 가정사업공동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각 가정에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역팀 (온누리 가정사역공동체 아웃리치팀):

온누리교회의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타 교회를 대상으로 가정 단위의 성서적 교육 훈련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정공동체의 지체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으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내외 교회들을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즉 하나의 큰 가정 교회(THE FAMILY-CHURCH-FAMILY)로 건설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교회의 목회방향에 맞추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개념적 신앙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신앙적 가정을 이루어, 이를 바탕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까지 자각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원자 가정들로 하여금, 가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보는 훈련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선교, 헌신에의 결단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